

2023-2호

이슈+ 생각

설문조사와 인포그래픽을 통해 교육이슈를 소개합니다

학부모-교사 신뢰 관계 강화 방안



본 설문조사는 ‘학부모-교사 신뢰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학부모와 교사 간의 신뢰를 높여 학생의 성장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학교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조사 개요

조사 대상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초·중·고 학부모(9,984명)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초·중·고 교사(2,802명)

조사 기간 | 2023.11.30.~12.7.

조사 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학부모와 교사 간의 신뢰도 조사 2

1. 설문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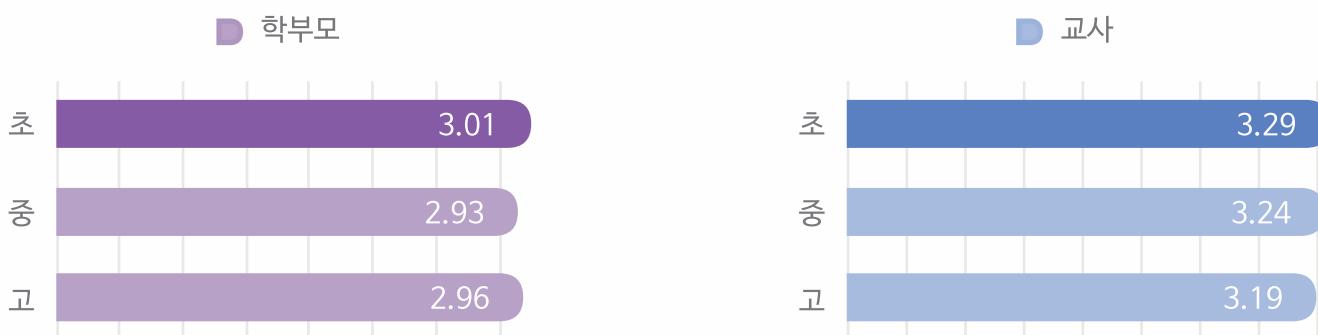
학부모 응답자 : 9,984명

교사 응답자 : 2,802명

학부모	초등학교	4,946명(45.5%)	교사	초등학교	1,312명(46.8%)
	중학교	3,195명(32.0%)		중학교	915명(32.66%)
	고등학교	1,843명(18.5%)		고등학교	575명(20.5%)

2. 학교의 참여적 풍토

자녀가 재학중인/본인이 근무중인 학교의 참여적 풍토(의사결정 과정에서 학부모 참여, 학부모 의견 반영, 공동책임 문화, 협력적 문화)에 대해 4점 척도로 물었습니다. 학부모의 경우는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의 참여적 풍토 점수'가 가장 높았고, 교사의 경우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의 참여적 풍토'에 대한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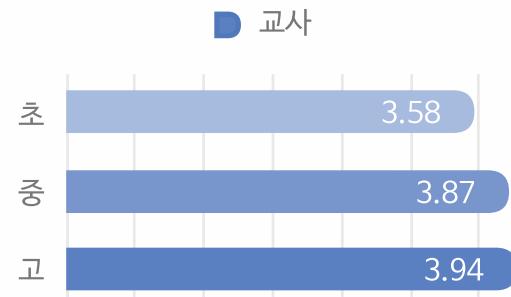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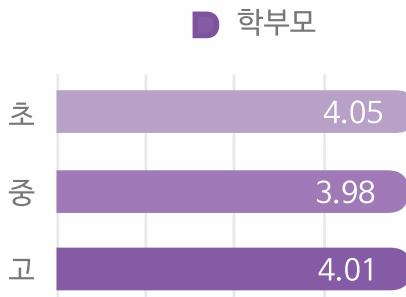
3. 상호 역할에 대한 신뢰

학부모에게 교사의 역할(교과학습 지도, 규칙과 지침 지도, 또래 간 갈등 해결 돕기, 친근함, 의견 수용)에 대한 신뢰 정도를, 교사에게 학부모의 역할(학업 지원, 규칙과 지침 지도, 또래 간 갈등 해결 돓기, 친근함, 의견 수용)에 대한 신뢰 정도를 4점 척도로 물었습니다. 학부모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았고, 교사의 경우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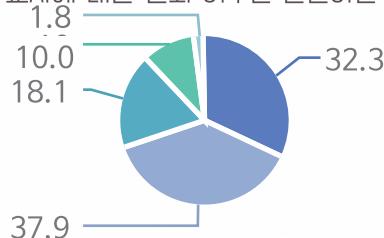
4. 학부모와 교사의 상호 신뢰

상호 신뢰(도움 요청을 위한 연락, 자녀 또는 학생에 대한 솔직한 상담, 자녀 또는 학생 교육의 책임) 정도에 대해 5점 척도로 물었습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부모의 경우는 교사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교사의 경우는 학부모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 교사를 신뢰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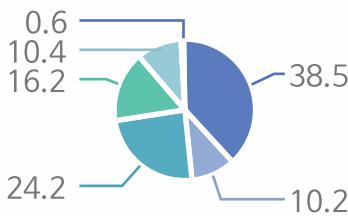
학부모들은 교사를 신뢰하는 이유로 ‘자녀와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교사에 대한 만족도’와 ‘자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와의 대화를 통한 간접적인 정보로 교사에 대한 신뢰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자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모습
- 자녀와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교사에 대한 만족도
- 자녀 관련 문제 발생 시 교사의 문제 대처 태도 및 능력
- 교사의 친절한 상담
- 기타

4-3. 학부모를 신뢰하는 이유

교사들은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 ‘교사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신뢰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
- 교사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
-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 자녀와 관련된 솔직한 의사소통
- 기타
- 자녀의 태도와 인성

4-2.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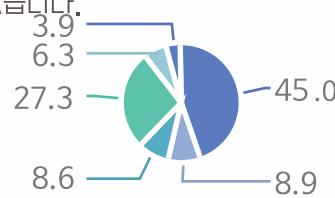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학생에 대한 교사의 무관심한 태도’, ‘학폭 등 자녀 관련 문제 발생 시 교사의 대처’가 가장 많았습니다.



- 학생에 대한 교사의 무관심한 태도
- 자녀가 말하는 교사에 대한 부정적 표현
- 학폭 등 자녀 관련 문제 발생 시 교사의 대처
-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부족
- 기타

4-4. 학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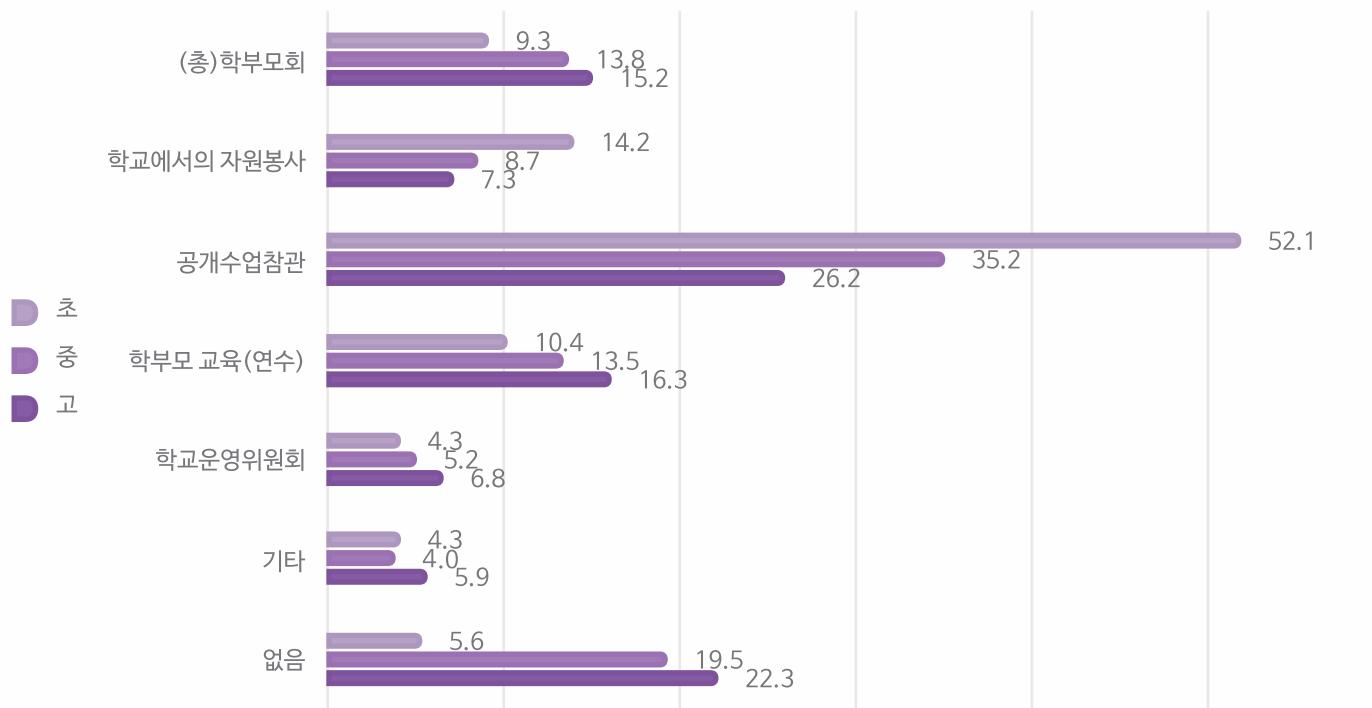
학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 중심의 이기적인 태도’와 ‘자녀의 문제행동 발생 시 객관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모습’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 자녀 중심의 이기적인 태도
- 교사의 지도와 전문성을 불신하고 탓하는 태도
- 자녀 교육에 무관심한 태도
- 자녀의 문제행동 발생 시 객관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모습
- 학부모의 다양한 민원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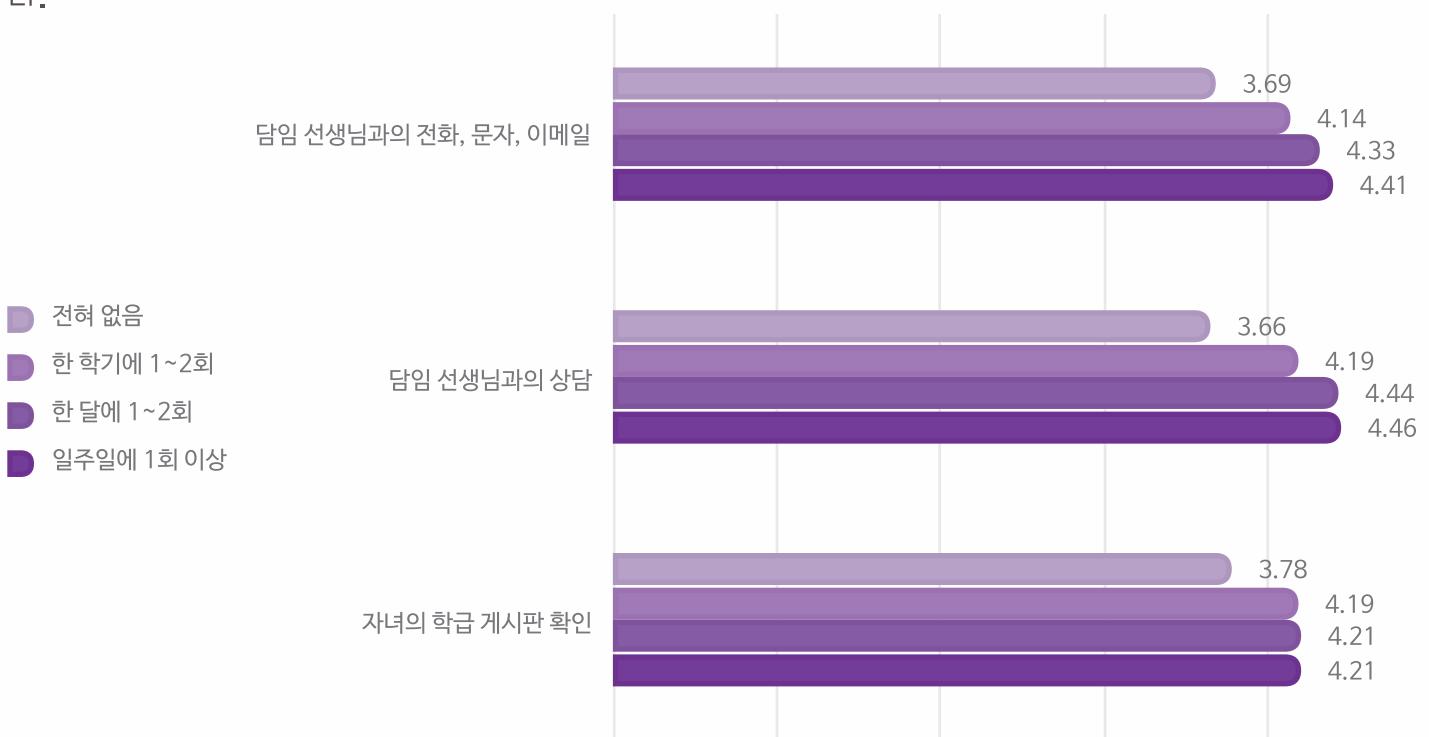
5. 학부모의 학교 행사 참여

학부모의 학교 행사 참여를 알아본 결과, 모든 학교급에서 '공개수업참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공개수업참관'(52.1%)>'학교에서의 자원봉사'(14.2%)>'학부모 교육(연수)''(10.4%)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등학교의 경우, '공개수업참관'을 제외하고 '없음'이 가장 높았습니다.



6. 학부모의 교육 활동 참여에 따른 교사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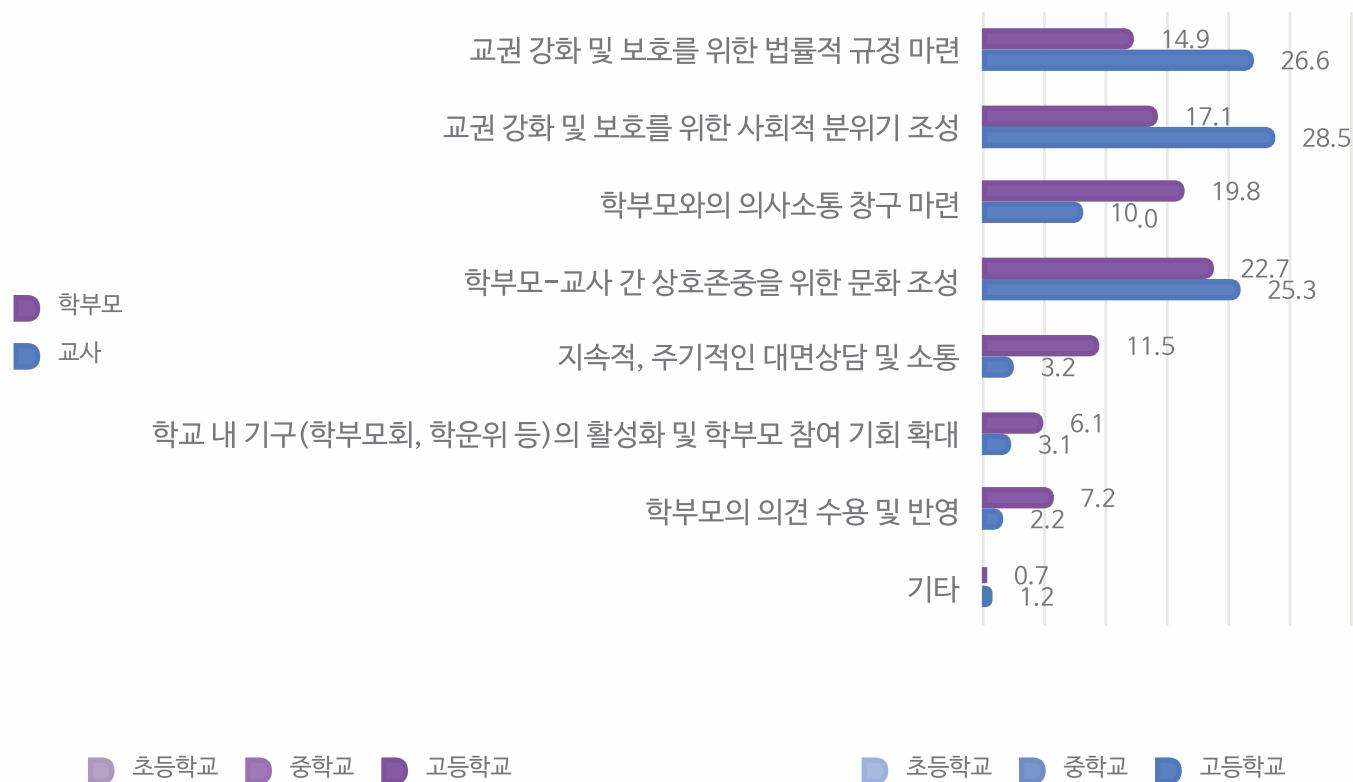
학부모의 교육 활동 참여에 따른 교사 신뢰 정도를 살펴본 결과, '담임 선생님과의 전화, 문자, 이메일', '담임선생님과의 상담' 등 담임 교사와 직접적인 소통이 많은 부모일수록, 교사에 대한 신뢰 정도가 높은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7. 학부모 - 교사 신뢰 관계 강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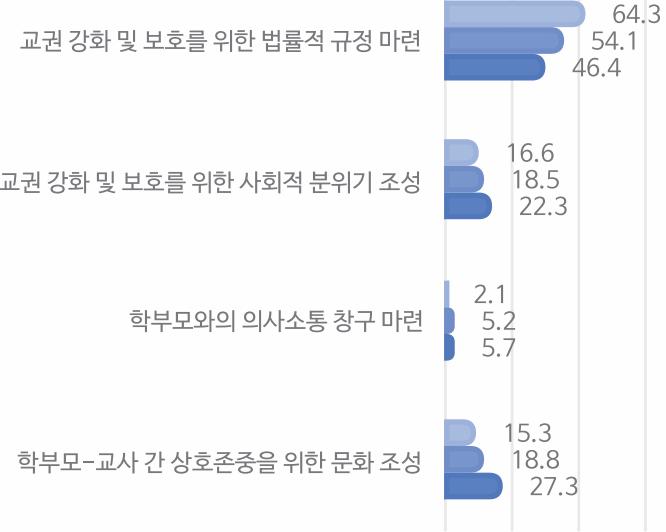
학부모-교사 신뢰 관계 강화 방안(3개 선택)을 질문한 결과, 학부모들은 ‘학부모-교사 간 상호존중을 위한 문화 조성’(22.7%)>‘학부모와의 의사소통 창구 마련’(19.8%)>‘교권 강화 및 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17.1%) 순으로, 교사들은 ‘교권 강화 및 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28.5%)>‘교권 강화 및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규정 마련’(26.6%)>‘학부모-교사 간 상호존중을 위한 문화 조성’(25.3%)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학교급에 상관없이 교사들은 ‘교권 강화 및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규정 마련’이, 학부모들은 ‘학부모-교사 간 상호존중을 위한 문화 조성’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1+2+3순위 합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학부모

교사

학부모-교사 신뢰 관계 강화 방안

학부모-교사 신뢰관계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자유 응답 내용을 분석하여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학부모

교사

학부모는 ‘소통의 기회 확대’, ‘소통창구 확대’, ‘정보 제공’ 등의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이러한 소통을 위한 선제 조건으로 ‘교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법률적 제도 마련’, ‘교사의 업무 경감’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이야기를 통해 교사에 대한 신뢰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교사의 존중과 관심’을 바라며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잘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차별이나 편견 없이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교사상을 바랐고, 자기 자녀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가지기 위해 부모도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교사는 ‘교권회복’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 ‘법률적 제도 마련’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교육의 의무화’도 필요하다는 답변과 이와 더불어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받기를 바랐으며, 교사 자체의 ‘책무성 강화 및 연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학부모, 교사 인터뷰

“교사와 학부모는 교육공동체로서 서로 소통을 원하지만 그 소통이 무서운 시대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는 상처를 받고, 닫혀 있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불안한 학부모는 학교를 감시하게 된다. 이런 현상의 부작용은 온전히 자녀 이자 학생에게 간다. 대다수의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 간의 소통을 원한다. 교사는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와의 소통을 원하고, 학부모는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 학교와의 소통을 원한다. 교사와 학부모가 잘 소통해야 자녀이자 학생은 배움이 즐겁고 온전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온전히 존중받고 만족스러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학부모를 학교로부터 멀리 떼어놓는 게 당장 해결책으로 보일지 몰라도 궁극적 해법은 될 수 없다. 내 아이에서 우리 아이를 보는 우리 학부모를 볼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교육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학교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 자치조직인 학부모회 참여도가 높아져야 하고, 학부모회가 건강한 공동체적 문화로 운영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닫기보다는 열고, 감추기보다는 공개하며, 서로 협력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자. 다양한 문제상황을 막을 수는 없지만 사전에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학부모와 교사가 협력하고 지지, 응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때 함께 성장할 수 있고 아이도 성장할 수 있다.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은 대한민국 교육 변화의 시작이다.”

- 'ㄱ'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전문가 도OO

“교사 입장에서 최근 학부모와 교사 간의 신뢰에 영향을 준 요인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첫째, 우리나라는 교사와 학부모 간의 전화나 SNS 연락이 잦은 편이다. 이러한 잦은 연락과 소통이 신뢰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도리어 시시콜콜한 민원이나 교권 침해를 야기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개인적 소통보다는 학교의 공식적 창구를 통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과도한 학업 경쟁으로 인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학교 교육과 사교육이 상호보완적으로 양립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나 사교육 마케팅 측면에서 ‘학교 교육의 질이 낮아서’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는 흑색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여론이 학부모와 교사 간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셋째, 초등학교 지필평가 폐지, 중학교 자유학년제 도입으로 교사가 학생들의 학업 역량, 생활 태도에 대한 평가권을 잃은 것이 신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학교 교육에서는 학생의 학업 역량에 대한 측정, 생활 태도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평가를 통해 학생이 개선해야 할 세부 사항을 분석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성장과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평가권은 교사 전문성에서 매우 중요한 권한이며 이러한 권한과 권위가 있는 존재에게 학부모는 신뢰를 보내줄 수 있을 것이다.

학교는 교실 1인당 학생수를 20인 이하로 감축하여 맞춤식 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정밀하게 파악한 맞춤식 교육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전문성에 대한 믿음을 학부모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K고등학교 교사 한OO

나가면서...

조사 결과, 대부분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학생을 매개로 서로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는 자녀가 전달하는 학교 생활의 에피소드나 교사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교사에 대한 신뢰도를 형성하였고, 교사 역시 학생의 행동이나 언행 등을 통해 학부모의 모습을 유추하면서 그에 따라 신뢰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학부모와 교사 간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생-교사 간 신뢰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응답에서 많이 나온 것과 같이 교사는 학생을 존중하여야 하고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는 자녀들이 교사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고 학교 생활의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와 교사의 공통의 목표는 자녀와 학생의 성장을 바르게 돋는 일입니다. 서로가 원하는 진솔한 의사 소통을 위해서는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날을 세우기보다는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소중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으나 교사는 한 교실의 학생들의 상황을 한꺼번에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를 둘보는 상황과 같을 수 없음을 학부모들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나 교육청은 교사가 수업, 생활 지도, 상담, 학부모와의 상담 등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그 외의 업무는 경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학교 폭력 사안이나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중재하며 학부모와 교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 교사, 관리자, 교육청 모두 학생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과 서로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상식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